삼나소식

126호
9월 27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창세기 22장 1절 ~ 13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

> 내가 매일같이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고
>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 내 생각과 입술과 내가 가진 물질까지, 모든 것이
> 예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
> – 본문 주일설교 (9/13) 중 –

창세기 2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번제란 제물을 칼로 잡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극한의 시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일을 아내 사라를 비롯한 혈육과 의논하려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할 리가 없고, 가정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혈육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육신의 정에 매일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 순종할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육신의 세계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2층' 영의 세계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거듭난 자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2층에 올라온 영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영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육 간에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었고,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시옵소서"라며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죄를 씻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콩팥과 기름은 불태우고 가슴(사랑)과 뒷다리(능력)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지만, '번제'는 사람이 얻어먹는 것 없이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 애쓰면 주님은 주무시지만, 내 지식과 감정을 포기하고 내 영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울하게 공격할 때도, 보복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즉시 그 순간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복수심과 육신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이 육신을 죽이시려고 그 사람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글자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매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0)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Becoming a Burnt Offering Before God

Passage: Genesis 22:1-13 (ESV)
Pastor: Dong Suk Chung
Please view the QR code for full sermon

In Genesis 22, God commands Abraham to take his son Isaac, whom he received at the age of 100, to the mountain of Moriah and offer him as a burnt offering., a sacrifice in which the animal is slaughtered and burned completely in the fire, wholly given over to God. The command to sacrifice a precious son was an extreme situation, one that a human would find hard to imagine, let alone accept. But what is significant is what Abraham did not do. He did not gather his family to weigh the decision together. Scripture says he rose early the next morning and set out. Had he stopped to reason with the people closest to him, the very ones whose love for Isaac would have tried to him convince against obeying God's command and he might never have left for Moriah. Centuries later the apostle Paul described his own calling in nearly the same terms, saying that when God set him apart, he did not consult with any human being but simply went forward. This pattern runs throughout Scripture. God's purposes are not accomplished through human calculation or emotions. They are accomplished when a person hears the Word of God and moves, without delay, into obedience.

This act of absolute obedience highlights a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Christian life: believers are called to operate on an entirely different plane of existence. All unbelievers in the world live on the "first floor", a realm governed strictly by physical senses, human logic, and earthly anxieties. But when a person is born again, they are elevated to the "second floor"—the spiritual realm in Jesus Christ. Christ came to dwell with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ose who are born again are no longer citizens of this world, but citizens of the eternal heavens.

Regrettably, many Christians continue to live and pray as though they are still trapped on the first floor. They approach God as earthly beggars, praying, "Lord, give me this" or "Lord, please do that". But true prayer is not asking God to hand over something you think you need in this life, but declaring and stepping in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by faith.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Christ has already canceled our debts, healed our illnesses, and secured our redemption. Thus, prayer becomes an act of acceptance rather than negotiation: hearing what God has already declared to be finished and answering with "Amen". Christian faith is believing the fact that when Jesus died, I died too, and when He resurrected, I resurrected too, and taking possession by faith of the grace God has already fully bestowed.

To fully walk in this spiritual reality, we must become a burnt offering before God. This is what Abraham's altar points toward. What was offered there was not simply Isaac. It was the demand that everything Abraham held, everything he loved, be surrendered without partiality, the way a burnt offering leaves nothing back for the one who brings it. That same offering is asked of every believer now: not a portion of life set aside for God on the side, but a whole life laid down, so that Christ living within can be seen without obstruction.

Most of the trouble that surfaces in a life, or in a family, traces back to a single misplacement, something else that has quietly taken the place of God. As long as we try to navigate life's storms with our own self-effort and wisdom, we rely on a strength that inevitably fails, much like the disciples frantically rowing against the storm while Jesus slept in the boat. It is only when we exhaust our own efforts, surrender our self-will, and let our ego die on the cross that Christ arises within us to command peace over our stormy circumstances.

Nowhere is this tested more clearly than in ordinary, daily conflict. When someone makes an unfair accusation against us, the temptation is to defend, to strike back, to respond with resentment. But that flash of anger is worth noting, because it is often the very thing God has orchestrated through that person's actions to put our flesh to death. As Paul declared he died daily, not once but continually, we also must make that declaration and put to death the old instincts of the body so the life of Jesus could finally be manifested through us.

Before the tribulations of the world arrive, we must be armed not with head knowledge memorized as written words, but with the living, active Word of life and obedience to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us. We are being trained in dying daily through each storm we face, the way the disciple Peter learned only after exhausting his own strength trying to fight against the turbulent sea that the answer was not about what he could do but what Christ would do once He is awakened. That is the whole aim of growing in faith: to become, in the end, a burnt offering. Not looking inward at one's own effort or failure, but looking 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believing it, confessing it, and letting a whole life be laid on the altar. By laying down our lives completely as burnt offerings, we leave behind the anxieties of the earthly floor and step fully into the victory, peace, and eternal life that are already ours in Christ.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유년부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